

## 아우구스티누스의 덕과 덕의지

양선건\*

**주제분류** 윤리학, 덕 윤리, 중세철학

**주요어** 아우구스티누스, 덕 윤리, 덕, 감정, 의지, 덕의지, 유덕한 행위자

**요약문**

이 글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가 성품과 덕성을 중시하는 행위자 중심의 덕 윤리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덕을 참된 인식에서 찾았던 고대의 덕 윤리와 달리 아우구스티누스는 덕을 도덕적 규칙을 따르는 자유의지의 행사로 이해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인간의 내적 성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실천은 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의지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그 의지는 또한 도덕적 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도덕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과 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의지는 선을 향할 뿐만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의지로서 인간의 의지는 근본적으로 덕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점에서 덕의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도덕적 의지와 유덕한 행위자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유덕한 행위자는 선을 소유하여 인간 이성이 올바르게 활동하는 자이고, 그가 선택하는 행위가 유덕한 행위이다. 유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선을 소유해야 하는데, 그러한 자만이 도덕적 완성에 이를 수 있다.

---

\* 중앙대학교

## 1. 들어가는 글

이 글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를 덕 윤리적 의지 즉 ‘덕의지’<sup>1)</sup>로 해석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의 요체로 이성, 정념, 욕구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 특히 악한 의지(mala voluntas)에 집중하여 덕을 분류한다. 의지가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는 욕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행위의 연속성을 보증하는 요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성품처럼 보이기도 하며, 의지가 발현되는 방향에 따라 덕 혹은 악덕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덕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윤리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의지로서의 의지는 이러한 욕구, 성품, 그리고 덕의 관계로 인해 덕의지로, 또한 성품과 덕성을 중시하는 행위자 중심의 덕 윤리에 비견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는 고대의 덕 윤리에서 현대의 덕 윤리로 이행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정 부분 현대 덕 윤리가 지닌 근본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 같은 관계는 덕 윤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에서 덕 윤리적 대안이 갖는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sup>2)</sup> 그리고 의무론 중심으로 경도되어

1) 이 ‘덕의지’ 또는 ‘덕-의지’(virtue-will) 용어는 맹주만의 「칸트의 덕과 덕-감정, 『칸트 연구』, 28권, 서울: 한국칸트학회, 2011)에서 차용했다. 이 논문에서 맹주만은 칸트의 덕과 선의지, 덕과 의무의 불가분의 내재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덕의지’라는 용어를 만들어 쓰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덕과 의지도 내재적 관계를 가지며, 또 도덕적 실천력의 공동 뿌리라는 점에서 유사한 형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맹주만의 「칸트의 덕과 덕-감정」, 특히 34쪽.

2) 덕 윤리에 대한 현대적 재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용한 대표적인 인물들인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 존스(L. Gregiry Jones), 키난(James F. Keenan), 메일랜더(Gilbert Meilaender), 포터(Jean Poter), 와델(Paul Wadell), 마호니(John Mahoney), 코트바(Joseph K. Kotva Jr.) 등은 덕 윤리가 기독교윤리의 표현방식을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에 덕 윤리적 해석을 통한 상보를 시도함으로써 그의 윤리적 논의를 보다 풍성하게 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sup>3)</sup>

근대 윤리학이 제시한 성과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등장한 현대 덕 윤리는 적지 않은 쟁점들을 양산했는데, 그 중심에는 과연 덕 윤리학이 그들 스스로 설정한 윤리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보다 유망한 성과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의문들이 자리하고 있다. 덕 윤리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있다. 하여 덕스럽게 살기를 요구하고 덕을 지닌 좋은 사람에게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에 집중하는 덕 윤리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도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덕 윤리의 선봉에 서 있는 맥킨타이어(A. MacIntyre)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를 덕 윤리의 중세적 의미로 제시하여 “아우구스티누스적 대안(Augustine's alternative)”<sup>4)</s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 자유의지론의 선구적 역할을 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서 덕 윤리적 면모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자유의지론 중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서는 자유의지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선의 결핍으로서 악을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덕 혹은 덕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기보다 악덕의 공통된 연원이 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의지는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조명되었다고

---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고 여기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자신들의 논의 중심에 두고 다양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3)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를 현대 덕 윤리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는 인물로는 웨첼(James Wetzel), 위크(J.H. van Wyk), 퍼거슨(David Fergusson), 바르트홀드(L. S. Barthold), 켄트(Kent), 브라흐텐도르프(Brachtendorf), 요한슨(Johanson), 문시영 등이 있다.

4) A. MacIntyre,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 163쪽.

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 문제와의 연관성을 떠나서 의지의 성품적인 측면이나 의지의 지향성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의지는 성품 내지는 감정이라는 덕 윤리적 요소와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sup>5)</sup>

아우구스티누스는 덕을 참된 인식에서 찾았던 고대의 덕 윤리와 달리 덕이 도덕적 규칙을 따르는 자유의지의 행사라고 파악한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의지를 기본적으로 인간이 마주한 특정한 상황에서 그에 적합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내적 성질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행위의 실천은 그와 같은 성질에 바탕을 둔 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sup>6)</sup>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이러한 의지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의지가 도덕적 선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선과 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을 향하거나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도덕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무엇보다도 의지는 근본적으로 덕을 실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덕의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와 유덕한 행위자의 관계를 통해 보다 명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유덕한 행위자는 선의지를 소유한 자로서 인간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고, 동시에 그가 선택하는 행위를 유덕한 행위로 규정한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론이 갖는 덕 윤리학적 단초와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

5) J. H. Wyk, "What are the key characteristics of a Christian Life?" 47-70쪽, L. S. Barthold, "Toward an ethics of love: Arendt on the will and St. Augustine," 1-20쪽, James Wetzel, "Augustine on the Will," 339-352쪽; *Augustine and the limits of virtue* 참조.

6) James Wetzel, *Augustine and the limits of virtue*, 47쪽.

## 2. 자유의지와 성품으로서의 의지

고전적인 덕 윤리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덕론에 대한 이해는 더욱 분명해진다. 선택지 X가 Y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반드시 X를 선택한다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달리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나약한 의지’(akrasia)의 문제인데,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로서의 악이 결과로서의 선을 능가함에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다.”<sup>7)</sup> 즉 나약한 의지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실천적 지혜(phronēsis)에 대해 무지하여 악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지, 결코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나약한 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약한 의지가 어떻게 성립가능한지를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7권에서 설명하고 있다.<sup>8)</sup>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7) Plato, *Protagoras*, 351b.

8)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에 반하는 행동을 주도한 ‘지식’이 어떤 성격인지를 해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쾌락과 고통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동시에 동일한 대상에 관련하여 무절제와의 비교도 진행된다. 비교 과정에서 무절제는 악덕이지만, 나약한 의지는 아니며 그저 피해야 할 상태임을 논증한다. 왜냐하면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올바른 이치에 따라 행하지 못한 만큼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지만, 그러한 쾌락을 마땅히 무한정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설득당할 정도까지 지배당하지는 않기”(1145a-1152a)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무절제한 사람과 절제 있는 사람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의지박약한 사람과 자제력 있는 사람을 비교 설명한다. 그가 설명하는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합리적 선택과 설득의 계기를 갖지 못하고, 쾌락을 이겨내지 못하며, 성급하거나 유약하여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되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보다 나은 행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로 인함이 아니라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이다.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무엇을 행하는지와 왜 행하는지를 알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사람이고, 따라서 그에게 나약한 의지는 단지 피해야 할 성품이다.

이에 비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의지를 선택하려면 다양한 내적 경향성들의 분쟁을 경험하게 된다. 경향성은 서로 대조되는 덕목들 혹은 유사한 덕목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반응과 관심인데, 그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한다.<sup>9)</sup> 왜냐하면 선택은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적 경향성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유덕한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의 인간은 유덕한 행위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덕 윤리에서는 인간이 유덕한 존재가 되기 어려운 까닭을 유덕한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경향성이 상반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를테면 인간의 성품에 내재하고 있는 극단적인 경향성은 내적 갈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인간이 유덕한 존재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1145a-1154b.

9) Augustinus, *Confessions*, 8.10.23.

본 논문에 인용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은 Migne의 *Patrologie Latine*(PL) 전집(32-45)과 *A Select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8vols, (eds.) Philip Schaff, Grand Rapids: CCEL, 2005년판을 주요 텍스트로 삼았으며 모든 인용의 출처방식은 일반적인 방식의 권, 장, 절 순서를 따라 표기하되, 로마 숫자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후에서 인용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은 저자명 없이 다음과 같이 약어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i>Conf.</i>	<i>Confessions</i>
<i>De civ. Dei.</i>	<i>De civitate Dei</i>
<i>De dua. anim.</i>	<i>De duabus animabus</i>
<i>De doc. chr.</i>	<i>De doctrina christina</i>
<i>De lib. arb .</i>	<i>De libero arbitrio</i>
<i>De mor. eccl.</i>	<i>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i>
<i>De nat. boni.</i>	<i>De natura boni contra Manichaeos</i>
<i>Ench.</i>	<i>Enchiridion ad Laurentium de fide, spe, caritate</i>

한다.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자에 집중하는 모습은 서로 비슷하지만, 덕 윤리가 상반된 인간의 경향성을 성품에 기초해서 접근하는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근본적으로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유덕한 행위자는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선택하는 의지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하며, 그 의지는 선을 향하여 올바른 배향의 질서를 선택하도록 하는 의지이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 또는 인간의 의지를 성품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선이 아닌 ‘중간적 선 (media bona)’으로 규정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 정신의 능력인 이성과 기억도 중간선에 속하는데, 이러한 영역들은 언제나 선을 향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sup>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선인 자유의지는 인간이 덕을 실행하거나 결단함에 있어 그 근원적 역할을 감당하고 이러한 점에서 덕과 내재적 관계를 가지며, 도덕 규칙을 이행하는 도덕적 실천력의 원천이 된다. 더욱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덕은 도덕적 규칙을 따르는 자유의지의 행사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는 ‘덕의지’(virtue-will)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각 개인의 특유한 성질로서 발현되는 과정에서 의지는 함양의 과정을 거치며 인간의 성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품으로서 의지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마주하였을 때 그 상황에 어울리는 특정한 덕이 발현할 수 있도록 그 행위와 관심의 연속성을 보증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는 인간 내면에서 발현되며 덕을 실현하고, 유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도덕성의 평가 대상을 행위의 옳고 그름이 아닌 행위자의 성품에 두는 덕 윤리의 성질을 고려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덕의지가 인간의 성품이라면 그것은 인간 도덕성의 평가 대상으로서 자리매김이 가능하게

10) *De lib. arb.*, 2.18.50; 2.19.50; 2.19.51.

된다. 이를 기저로 덕의지로서 자유의지가 최고선을 향한다면 그러한 의지를 소유한 자의 행위는 덕스럽게 되고, 이성을 올바르게 구사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유의지는 올바른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덕은 성립되며,<sup>11)</sup> 덕의지 역시도 의미를 가지게 된다.

### 3. 의지의 지향성과 자발성

감정이나 욕구는 인간의 도덕성 및 성품을 형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행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의지이다. 또한 의지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이다. 이는 인간의 행위가 의지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는 인간의 성품을 대변하는 감정이나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감정을 욕구(cupiditas), 기쁨(laetitia), 두려움(metus), 슬픔(tristitia)의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데, 성품으로서 욕구의 유(類)개념인 감정을 기억(memoria sui)-지성(intelligentia)-의지(voluntas)라는 삼위일체적 유비 도식을 통해 의지와 기억의 관계라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sup>12)</sup> 해리슨(S. Harrison)은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 개념은 마치 데카르트적인 코기토와 같은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sup>13)</sup> 아우구스티누스는 감정을 간직하는 기관이 기억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안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것들을 거두어 모은다는 의미이며, 여기에서 생각한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유추한다. 이를테면 라틴어 ago(행동한다)

11) *De lib. arb.*, 2.19.52.

12) 에티엔느 질송,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426-427쪽.

13) Simon Harrison, "Do We Have a Will?: Augustine's way in to the will," 195-205쪽.

는 agito(움직이다)와 연관되어 있고, facio(만든다)는 factito(실행하다)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cogito(모은다)와 cogito(생각한다)가 관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cogito라는 단어를 마음의 기능에만 한정시켜 적용했기 때문에 cogito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sup>14)</sup> 그러므로 감정들을 종개념(particular species)으로 분류하고 정의하고자 할 때 기억으로부터 이것들이 상기되고 발견된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 자체의 개념들은 육체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가 감정을 경험하고, 의식하면서, 이를 기억에 위탁할 따름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감정들을 기억 안에서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감정적인 경험들은 전혀 다루거나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5)</sup>

이에 대해 질송(E. Gilson)은 영혼의 감각적인 모든 움직임들인 의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류한 네 종류의 근본적인 감정으로 환원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를 감정의 질서에서 다루는데, 이를 통해 감정 개념들이 지향하는 바가 드러난다. 그에 의하면 욕구는 의지가 어떤 대상을 향하도록 하는 움직임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쁨은 얻게 된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만족하는 것이고, 두려움은 어떤 대상과 마주하였을 때 위축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의지의 움직임에 굴복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슬픔이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악에 대한 승인을 거부함을 의미한다.<sup>16)</sup> 질송이 설명하는 영혼의 모든 움직임이란 영혼이 획득하거나 보존해야 하는 선을 향하는 움직임 또는 떨어지거나 거부해야 하는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움직임은 영혼에 있어서 의지 그 자체이다.<sup>17)</sup> 그러하기에 영혼의 모든 움직임은 의지에 의존하는

14) *Conf.* 10.11.18.

15) *Conf.* 10.14.22.

16) E. Gilson, *The Christian Philosophy of St. Augustine*, 261쪽.

17) *De dua. anim.*, 10.14, *De civ. Dei*, 14.6.

데 이를 이끄는 힘이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거나 잘못된 사랑일 경우 이는 욕구(cupiditas)이고, 선의지(vonae voluntatis)를 지닌 것이 사랑(caritas 또는 amor)인데,<sup>18)</sup>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에서 의지의 지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사랑의 두 개념, ‘카리타스(caritas)’와 ‘쿠피디타스(cupiditas)’가 등장한다. 이 둘은 모두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그 성격은 다르다. 카리타스는 올바른 사랑이자 온전한 사랑으로 신을 향하는 사랑이고, 쿠피디타스는 그 역이다. 이 둘은 자유의지라는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하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과 그 배열에 따라 이들의 위상은 갈리게 된다. 이는 의지의 지향성 문제를 자연적인 문제에서 도덕적 능력으로 그 지평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영혼의 움직임으로서의 올바른 의지는 악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도덕적 선이자 최고선으로 향해 올바르게 배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지의 지향성은 덕 윤리에서의 성향이나 경향성과 비슷한 특질을 지닌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우리의 선택과 행위에 대하여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의지의 지향성은 성향이나 경향성과는 다른 성격을 갖추지만, 하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함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성품이 어느 한 순간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들을 거치면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점과 매우 유사하다. 비록 그가 다루고 있는 의지가 신에 의해 부여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직 온전한 도덕적 기능을 하는 선의지로서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또한 도덕적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과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 의지의 지향성은 도덕

---

18) *De civ. Dei*, 14.7.

운처럼 인간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영향력, 정황 등에 직면할 때 의지의 지향성은 특정한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로 작용하며, 그 욕구하는 대상이 덕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실천적인 성품으로 자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의 의지는 도덕적 의지이자 덕의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의 지향성은 구체적인 행위 보다 우선하지만, 감정의 발현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상호관계를 가진다. 이를테면 감정은 의지의 지향성에서 기인하며, 의지의 지향성은 감정에서 구체화되어지는데, 이를 통해 이들의 내재적 관계는 드러나게 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서 의지는 이성보다 앞서는 가장 근본적인 단계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의지가 감정의 연원이 된다고 표명한다.<sup>19)</sup> 의지가 감정의 연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이성 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의지는 인간이 마주한 고유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성이 선택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sup>20)</sup> 따라서 인간 의지와 의지의 지향성은 인간 행위의 역동적 연원이 되는데,<sup>21)</sup>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발견되는 독창성이다.

이러한 자유의지를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데, 선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도 하고 역으로 불행한 삶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인간이 처한 불행 혹은 악을 체험하는 상황은 외적 요소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인간 내부의 요소, 곧 인간의 욕구를 지칭하는 의지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욕구 문제는 그 원인이 인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체험하는 극한

19) *De civ. Dei*, 14.6.

20) A. W. S. Baird, *Studies in Pascal's Ethics*, 70쪽.

21) A. MacIntyre,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 145쪽.

이나 열악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인간 외부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질서를 왜곡한 인간 의지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행한 의지의 결과이다. 따라서 누군가 사물을 악용하였을 때 비난 받을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오로지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비난받아야 한다.<sup>22)</sup>

그렇지만 인간이 어떤 행위를 선택할 때, 때로는 외부적인 요소가 행위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지가 자발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능력인 이상, 행위 자체를 인간이 선택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외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의 자발성에서 기인한다. 이를테면 자연에서 발생하는 낙하 운동과는 달리 의지가 외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발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핍된 운동이라는 점에서, 또 모든 결함은 허무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최악이라고 부르는 저 배향의 움직임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라.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속하지 않음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그 결함이 자발적인 것인 이상 우리 능력에 달려 있다.<sup>23)</sup>

덕이 주어져 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귀속의 준거를 마련해 준다. 이는 비록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움직임 곧 인간의 의지 선택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고, 따라서 그 도덕적 책임 또한 신이 아닌 인간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책임과 관련하여 의지를 다룰 때, 의지의 운동은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자발적이며 의도적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외적 강요의 요소보다는 의지 자체의

---

22) *De lib. arb.*, 1.16.34.

23) *De lib. arb.*, 2.20.54.

의도적 행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일치할 때, 의지는 행위 그 자체라고 표명한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의지에 관심을 갖고 기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외적 강요가 얼마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이라는 능력을 지닌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 하였는가 혹은 악하게 사용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있다. 이러한 의지의 자발성은 성품 함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지의 지향성 보다 선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향하려고 하는 성질이 이미 자발성이라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고, 자발성 자체가 지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도덕적 실천력을 발휘하는 근본요소가 되며, 도덕적 책임을 기쁨하는 잣대로 자리한다.

#### 4. 덕의지와 사랑의 덕

맥킨타이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목하는 인간의 지성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합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지에 의해 발현된다고 강조한다.<sup>24)</sup> 이러한 맥락에서 누틸타(S. Knuutila)는 중세적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고대철학에서 합리성을 대신할 만한 것으로 여기며, 이를 집중적으로 논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가 인간의 행위를 이끌어가는 영혼의 역동적이고 통제적인 활동이라고 평하였다.<sup>25)</sup> 의지가 합리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지는 자유의지를 선용하는 행위가 바로 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

24) A. MacIntyre,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 167쪽.

25) Sino Knuutila, "The Emergence of the Logic of Will in Medieval Thought," 206-221쪽.

진다. 의지가 유덕하다고 할 때 그 의지는 도덕적 의지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의지는 비록 그 자체만으로 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덕스러운 행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력을 지닌 의지는 언제나 덕의 영역에 존재한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덕과 의지의 밀접한 관계는 그것이 덕을 실행하려 한다는 점과 도덕적 실천력의 공동 뿌리라는 점에서 맹주만이 다루었던 칸트식의 ‘덕-의지’(virtue-will) 혹은 덕의지와 유사한 형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sup>26)</sup>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궁극적 덕이란 사랑에서 비롯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의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영혼의 모든 움직임은 의지에 의존하고, 영혼의 움직임을 이끄는 영혼의 중력은 사랑이다. 이를테면 인간의 행위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경향성이 사랑이라고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덕은 바로 여기에 자리한다. 따라서 덕이란 인간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동시에 반드시 사랑해야 할 것만을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그에게 있어서 덕이란 곧 사랑의 올바른 배향이고, 덕의지란 이러한 덕이 잘 발휘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덕목은 근본적으로 고전적 덕 윤리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는 고전적인 사주덕(cardinal virtues)을 신을 사랑하는 네 가지 형태의 덕으로 변형시키는데, 그에게 덕이란 “사랑의 질서”<sup>27)</sup>로서, “절제는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를 건전하게 지키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용기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을 말한다. 정의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랑이다. 그리고 분별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것과 방해가 되는 것을 잘 식별하는 사랑이다.”<sup>28)</sup> 그리고 바른 의지는 선한 사랑이지만, 그릇된 의지

26) 맹주만, 「칸트의 덕과 덕-감정」, 34쪽.

27) *De civ. Dei*, 15.22.

는 나쁜 사랑이다.<sup>29)</sup> 그러므로 사랑이 올바른 배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는 유덕한 것이고(caritas), 잘못된 전향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자리 잡은 경우에는 악덕(cupiditas)이 된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루는 덕목의 내용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들과는 다르며, 어떤 경우에는 그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덕 윤리에서 덕은 인간이 자아를 형성하고 결단을 내리는 행위자임을 인식하는 데에서 획득되어진다면,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사랑의 덕(caritas)’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사랑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는”<sup>30)</sup> 데에서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사랑이 올바른 배향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카리타스의 덕은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amor Dei)”이다. 그에게 사랑의 덕(caritas)은 영혼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비록 덕목의 내용들은 변형이 있었지만, 덕목이 인간을 텔로스(telos)에 이르게 하는 것이자 구성요소로서 인간이 특정한 종류의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는 덕 윤리적 특성은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정한 인격체란 사주덕을 구현하는 자로서 유덕한 행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덕목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고선을 향하도록 하는 목적이자 수단으로서 자리한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비슷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덕 윤리가 덕목들 자체만으로도 수단일 뿐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의 핵심요소로 여기는데 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고선을 배제한 덕목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가 결여된다고 간주하는 점은 차이가 있다. 이처럼 덕 개념이나 그 사유의 틀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양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과 의지의 관계를 “행위자의 사랑이 선한 것이

28) *De mor. eccl.*, 15.25.

29) *De civ. Dei.*, 14.7.

30) *De doc. chr.*, 1.25.

라면 그의 열정과 그의 의지 또한 선할 것이다. 만일 그 사랑이 악하다면 열정도 의지도 악한 것<sup>31)</sup>이라고 하며,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 (Pondus meum amor meus), 어디로 이끌든지 그리로 내가 간다”<sup>32)</sup>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존재하는 것은 각자 무게가 있다. 존재하는 것은 그 무게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각자에게 어울리는 자리에 위치한다. 이를테면 공중에서 떨어뜨린 돌은 밑으로 움직이고 불은 위로 향하는데, 이를 통해서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저마다의 운동방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름 위에 물을 부으면 물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물속에 부은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방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운동의 방향이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무게의 제자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그러므로 모든 운동 방향은 그 무게의 제자리를 향하는 것이 순리이고, 모든 것은 그것의 무게로 인해 제자리를 향해 움직이게 된다. 올바른 운동 방향에 따라 무게가 자신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자 그가 언명하는 유덕함이다. 무게에 따라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인간의 의지 또한 영혼의 무게 중심을 따라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바른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올바른 배향과 질서는 우선적으로 신을 사랑하고, 이후 질서의 원칙에 따라 다른 것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3)</sup> 이는 여러 갈래로 나뉘거나 양단으로 상반되었던 의지가 올바른 배향과 위치에 자리하면서 비로소 안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된 의지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간을 두고 실천을 반복하며 이루어진 함양된 의지로서, 그 행위자로 하여금 행위에

---

31) *De civ. Dei*, 14.7.

32) *Conf*, 13.9.

33) *De doc. chr.*, 1.26.

연속성을 가지게 하며, 정황이 바뀌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을 지닌다. 이는 의지가 그 목적에 맞게 행위 하게 하는 성품이자 능력이 됨을 의미하고 이를 가리켜 고전적 덕을 변형시킨 사랑으로서 ‘사랑의 덕(caritas)’이라 한다. 이와 같은 카리타스의 덕은 사랑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육체는 영혼을, 영혼은 신을 따르는 능력 자체가 바로 덕(caritas)이다. 그리고 이러한 덕(caritas)을 소유한 행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야 비로소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는 유덕한 의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그의 의지는 성품이 안정적으로 함양된 상태이고 또한 그 계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덕의지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기 사랑(amor sui)’과 ‘세상 사랑(amor mundi)’에 대해서도 논하면서 신에 대한 사랑이자 최고선으로서 참된 선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적절하게 지닐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신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의미는 이웃도 자신처럼 완전한 사랑을 통해 신을 사랑하고, 신을 향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을 포함한다는 뜻이다.<sup>34)</sup> 이를테면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선을 그 이웃이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개하는 덕론의 특징이며, 덕의 본성이고 역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덕이란 올바르게 형성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있는 사랑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한다.<sup>35)</sup> 그리고 덕목들이란 이러한 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통로인데, 인간 의지로서 사랑이라는 덕목(virtues)은 덕(the virtue)을 완성하는 통로가 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그에게 ‘사랑의 덕’이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덕이지만 동시에 여러 덕목들 중 하나가 된다. 그리고 행위자의 사랑이 신을 향한 사랑으

34) *De mor. eccl.*, 26.39.

35) F. S. Carney, "The Structure of Augustine's Ethics," 33쪽.

로 그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면 의지는 비로소 도덕적 완성을 향하게 된다.

## 5. 유덕한 행위자와 선의지

만(W. Mann)의 주장에서 촉발된 일련의 논변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가 의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가 지니는 특징을 이른바 내적 삶의 윤리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sup>36)</sup> 만이 제시하는 유덕한 행위자란 그/그녀가 마주한 그 상황에서 그/그녀가 마땅히 지녀야 할 만한 동기, 기질, 성품 등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유덕한 행위자가 취한 행위가 곧 옳은 행위를 의미한다. 종합해 볼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덕의지는 행위자가 마주한 상황에서 마땅히 지녀야 할 만한 동기, 기질,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덕의지를 소유한 자가 그에게 있어서는 유덕한 행위자라고 불릴 만하다고 여겨진다.

유덕한 행위자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의 관계는 십계명을 면밀하게 고찰할 때 보다 정확하게 드러난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의 명령 때문인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인가? 십계명은 단순한 행위지침이거나 단지 실정법에 불과한 율법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신탁이다. 열 개의 계명 중 처음 세 가지 계명은 신에 대한 의무이고, 나머지 일곱 계명은 인간이 해야 할 의무이다.<sup>37)</sup>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신을 따르는 자들의 의무이자 인간 사이에 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라

36) William E. Mann, "Inner Life Ethics," 140-165쪽.

37) *De civ. Dei*, 18.41.3, *Conf.*, 3.8.16; 13.19.24.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십계명이 신탁이자 도덕적 의무로서 그것이 점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십계명은 절대 명령이고 이는 그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시종여일한 도덕 법칙이다. 그런데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명제를 주목해 보자. 성서에서 신은 이를 신탁이자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할 의무로서 도덕적 명령으로 내렸지만, 그 계명들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 살인을 명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살인에 대한 명제는 적어도 신(God)이 내린 명령을 집행 또는 준행하기 위해 인간들 스스로 살인이라는 신탁 내지는 법령의 내용을 충돌시킨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에우티프론과 함께 신들(gods)과 도덕성에 대해 논했을 때의 분위기를 상기시켜준다. 플라톤의 대화편 <에우티프론>에서는 신들이 자주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신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만을 주장하여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sup>38)</sup> 비록 성서의 신(God)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신들(gods)의 속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 십계명이 신(God)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기에 양자가 대등하지 않은 관계 사이에서 신의 주권적인 명령이고, 에우티프론이 다루는 신은 대등한 신들(gods) 간의 논쟁이기에 그 대상이 점하는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논쟁은 계속하여 전개되며 그 내용이 일축되지 않는 측면에서 이 둘은 사뭇 비슷한 느낌을 준다. 이를테면 주요한 명제가 모순되고 충돌하는 모습이 그러하다. 결국 십계명 중 여섯 번째 계명으로 인해 인간들은 신탁에 대하여 그 스스로 논리적 오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논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논증이라면 이우구스티누스의 의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인간 의지는 신의 명령을 시행함에 있어 그 명제 자체의 해석적 모순과 충돌로 인해 논리적 오류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38) 플라톤, 『에우티프론』, 5c-d.

가 에우티프론과의 대화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신(God)이 명령하였기에 행위가 -최소한 이 글에서만-은 십계명이- 옳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옳기 때문에 신이 그것을 명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물론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신이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 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신이 살인을 명령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정당성은 확보가 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적어도 전쟁 및 불순종에 있어서만큼은 그러한 살인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을 보인다.<sup>39)</sup> 또한 집안에 침입한 강도의 예나 부지중에 살인한 경우에 대한 성서의 예외적 사항을 설명하며 예외적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부연하고 있다. 또한 비록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신에게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은 찬사를 받기까지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마치 살인을 용납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부연을 고려할 때 그가 용인하는 살인의 의미는 단지 실수에 대한 옹호 내지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방어에 대한 용인일 뿐 모든 살인을 용납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신은 그토록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또한 신이 내린 이 명령을 타당하고 옳은 명령이라고 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개념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신이 명령한 내용에는 고도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신이 명령하는 바는 오로지 도덕적으로 옳은 바만을 요구하고 명령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결국 완벽하게 선한 신이 요구하는 어떤 명령은 그 행위 자체로 옳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명령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신이 명령한 것은 그 행위가 옳기 때문이지,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옳은 것만은 아니

---

39) *De civ. Dei*, 1.21; 10.8.

라는 점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논의에서 다루었던 십계명의 조항들은 최고 법칙으로서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도덕에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규준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행위 보다는 행위자에 집중한다는 점은 더욱 부각된다. 카니 또한 이러한 맥락에 주목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목하는 것은 ‘금과 은’ 같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바로 행위자이다.<sup>40)</sup>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음식도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식탐자가, 포도주 그 자체 보다는 술 취하기 즐겨하는 사람이,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간통과 간음을 행하는 자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sup>41)</sup> 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간은 의지의 능력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획득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의지의 능력 안에서 의지 그 자체보다 더 완전한 것이 있을까?”<sup>42)</sup> 라고 물으며 행위자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그런데 의지가 선을 추구하는 성향, 즉 선의지를 지니며, 또 덕의 소유자가 보다 큰 선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최고선은 신 자체이므로, 결국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러한 선을 실천할 수 있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도덕적 완성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람, 즉 유덕한 행위자만이 그에 비례하는 유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선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며,<sup>43)</sup> 유덕한 행위는 바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징표가 되고, 덕은 유덕한 행위자에 대한 그 준거가 된다. 이로 인해 아

40) F. S. Carney, "The Structure of Augustine's Ethics," 35쪽.

41) *De civ. Dei*, 14.33.

42) *De lib. arb*, 1.12.26.

43) E. Gilson, *The Christian Philosophy of St. Augustine*, 23쪽.

우구스티누스에게 선(善)은 유덕한 자격을 갖춘 행위자의 의지와 결부되며, 선의지는 의지의 대상이 아닌 의지 그 자체를 통해서 평가된다. 그리고 ‘선의지’를 갖춘 사람은 덕을, 무엇보다도 사주덕을 갖추어야 함이 전제가 된다.<sup>44)</sup>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사주덕 하나하나가 의지의 발로이며, 당연히 “선의지를 중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덕들이 갖추어져”<sup>45)</sup>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의지를 지닌 사람은 덕에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되고, 덕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만이 유덕한 행위자라 불릴 자격을 부여 받는다.

## 6. 나오는 글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가 현대 덕 윤리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는 신의 명령이라는 규칙과 원칙을 중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그의 윤리에서 행위의 실천 가능성이 덕의지의 소유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위자 중심의 이론을 부연한다면 현대 윤리학의 논의에서 그의 윤리적 대안이 가지는 의미는 보다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인간이 덕목들을 통해 특정한 인격체가 된다는 사실에 그의 시선이 고정된다는 점을 주목할 때 그의 윤리를 행위자 중심의 이론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 먼저 덕 윤리가 강조하는 감정이나 욕구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로서의 도덕적 의지가 갖는 성품으로서 계발이 가능하며, 또 그것이 선을 추구하려는 의지의 지향성과 자발성이 갖는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

---

44) 아우구스티누스, 『자유지론』, 해제 39쪽.

45) *De lib. arb.*, 1.13.27-29.

학적 관심에서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는 덕 윤리학적인 관점과 맥락에서 접근할 때 그 의의를 한층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해석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의미하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는 본유적 의지이다. 이는 지속적인 덕의 추구를 통해 덕과 내재적 관계를 형성하며, 덕을 실행하고 결단하는 근본적인 요소로서 자리한다. 그리고 도덕적 실천력의 원천으로서 언제나 덕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덕의지이다. 그러므로 본유적 의지이자 덕의지로서 인간이 지니는 선의지란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최고의 지혜에 도달하기 회구하는 의지”<sup>46)</sup>이고, 이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와 유덕한 행위자와의 관계를 분석할 때 보다 명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유덕한 행위자는 최고선을 추구하는 덕의지의 소유자로서 인간 이성이 올바르게 활동하는 자이고, 그가 선택하는 행위가 곧 유덕한 행위이며, 덕(virtue)은 덕(caritas)으로서 사랑의 올바른 배향이다.

---

46) *De lib. arb.*, 1.12.25.

## 참고문헌

- 맹주만. 「칸트의 덕과 덕-감정」. 『칸트 연구』. 28권. 서울: 한국칸트학회, 2011.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역. 서울: 이  
제이북스, 2006.
- 아우구스티누스. 『자유지론』.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2.
- 에티엔느 질송.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김태규 역. 서울: 성균관대학  
교 출판부, 2011.
- 플라톤.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플라톤의 네대화  
편)』. 박종현 역. 서울: 서광사, 2003.
- Barthold, Lauren Swayne. "Towards an ethics of love: Arendt on the will  
and St Augustine."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Volume 26*.  
2000.
- Carney, F. S. "The Structure of Augustine's Ethics." in W. S. Babcock. ed.  
*The Ethics of St. Augustine*. Scholars Press, 1991.
- Harrison, Simon. "Do We Have a Will?: Augustine's way in to the will."  
in G. B. Matthews. ed. *The Augustinian Trad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Knuttila, Sino. "The Emergence of the Logic of Will in Medieval  
Thought." in G. B. Matthews. ed. *The Augustinian Trad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Mann, William E. "Inner Life Ethics." in G. B. Matthews. ed. *The  
Augustinian Trad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Wetzel, James. "Augustine on the Will." in Mark Vessey. ed. *A*

*Companion to Augustine*. Blackwell Publishing Ltd., 2012.

Wyk, J. H. van. "What are the key characteristics of a Christian life? A comparison of the ethics of Calvin to that of Augustine and their relevance today." *Die Skriflig. Volume 44*. 2010.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Roser Crisp. ed.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Augustinus. *Confessions*. Philip Schaff. ed. *A Select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CCEL., 2005.

\_\_\_\_\_. *De civitate Dei*. Philip Schaff. ed. *A Select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CCEL., 2005.

\_\_\_\_\_. *De duabus animabus*. Philip Schaff. ed. *A Select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CCEL., 2005.

\_\_\_\_\_. *De doctrina christina*. Philip Schaff. ed. *A Select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CCEL., 2005.

\_\_\_\_\_. *De libero arbitrio*. Philip Schaff. ed. *A Select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CCEL., 2005.

\_\_\_\_\_. *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 Philip Schaff. ed. *A Select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CCEL., 2005.

\_\_\_\_\_. *De natura boni contra Manichaeos*. Philip Schaff. ed. *A Select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 Grand Rapids: CCEL., 2005.
- \_\_\_\_\_. *Enchiridion ad Laurentium de fide, spe, caritate*. Philip Schaff. ed. *A Select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CCEL., 2005.
- Baird, A. W. S. *Studies in Pascal's Ethics*. Hague: Martinus Nijhoff, 1975.
- Gilson, E. *The Christian Philosophy of St. Augustine*. L. E. M. Lynch. ed. London: Lowe and Brydone Ltd., 1960.
- MacIntyre, A.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8.
- Plato. *Protagoras*. Nicholas Denyer. ed.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Wetzel, James. *Augustine and the limits of virtu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St. Augustine's Virtue and Virtue-Will

Yang, Seon-Geon (Chung-Ang Univ.)

In this article, Augustine expressed his beliefs about the human will. Augustine's view of will as a free will is foundational to understanding that character and virtue are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behavior within an ethics of virtue. Ancient virtue ethics have found virtue from true recognition. In contrast, Augustine must understand that virtue is the exercise of free will to follow the moral rules. Augustine's will basically means that intrinsic to human nature internal examination which encourages conduct appropriate to the specific situation. Therefore, practicing these internal examinations results in virtue. The human will can be called a moral commitment because this will has been given to man by nature, and that will is toward the moral Good. When at a crossroads, one must choose either good or evil; not only can one move towards good, but the human will can intentionally choose good. In this sense, the human will is a moral commitment. This moral commitment, the willingness to perform the essential virtue, can be called "virtue-will." Human beings who internalize virtue-will and act on it for good are Virtuous Actors. This virtue-will is clearly evident through the relationship of man's moral will and virtuous actors. The act of selecting good is a virtuous act. One who wants to be virtuous must have supreme goodness, and only such a person can arrive at moral completion.

철학탐구 제41집

Key words: Augustine, virtue ethics, virtue, emotion, will, virtue-will,  
virtuous actor

양선건 E-mail: [skydosa@daum.net](mailto:skydosa@daum.net)

투 고 일	2016년 01월 10일
심 사 일	2016년 01월 28일
게재확정	2016년 02월 15일